



오클랜드

성 김대건 한인 천주교회

ST. ANDREW KIM KOREAN CATHOLIC PASTORAL CENTER

본당신부: 안기민 사도요한 510-562-3843

사목회장: 김경년 베드로 오일공-육구삼-공구이공

평협회장: 최대연 다니엘 오일공-이팔돌-이오팔공

선종회장: 채성일 토마스 오일공-오팔구-삼삼일일

2023년 우리공동체 사목방향

젊은이들과 함께하는 공동체

영적으로 성장하는 공동체

봉사하는 공동체

(백) 온 누리의 임금인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왕 대축일(성서 주간)

2023년 11월 26일 (제2058호)

사무실: 6226 CAMDEN ST. OAKLAND, CA 94605

E-mail: standrewoak@gmail.com

TEL 510-553-9434

홈페이지: WWW.OAKCC.ORG

근무시간: 수(8am~5pm) 토/일(8am~5pm)

주일 학교	주일 오전 10시 30분 교육관	
한국 학교	토요일 오전 10시 ~ 오후 1시	
예비자교리	주일 오전 10시 교육관 106호	
신심 단체	레지오마리아	주일 오전 9시 30분~10시 30분
	성령기도회	토요일 오전 9시
	향심기도회	월요일 저녁 7시30분 온라인
성 시간	첫 목요일 저녁 미사 후	

미사	주일 미사	오전 8시 / 11시
	영어 미사	매월 첫째주 토요일 오후 3시
	평일 미사	화·목 오후 7시 30분 수·금(대건회관)·토 오전 11시
성사	고해성사	미사 30분 전
	병자성사	사무실/주임신부님 상시 신청
	혼배성사	사무실 신청
유아세례	사무실 상시 신청	
환자봉성체	매월 첫째 주	

제1독서 에제키엘 34,11-12.15-17

화답송 시편 23(22),1-2 7.2ㄴ-3.5.6(◎ 1)

- ◎ 주님은 나의 목자, 아쉬울 것 없으라.
- 주님은 나의 목자, 아쉬울 것 없으라. 푸른 풀밭에 나를 쉬게 하시네. ◎
- 잔잔한 물가로 나를 이끄시어, 내 영혼에 생기 돋우어 주시고,
당신 이름 위하여, 나를 바른길로 이끌어 주시네. ◎
- 원수들 보는 앞에서 제게 상을 차려 주시고, 머리에 향유를 발라 주시니,
제 술잔 넘치도록 가득하옵시다. ◎
- 제 한평생 모든 날에, 은총과 자애만이 따르리니, 저는 오래오래 주님 집에 사오리다. ◎

제2독서 사도 바오로의 코린토 1서 15,20-26.28

복음환호송 마르 11,9.10 참조

- ◎ 알렐루야.
-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 찬미받으소서! 다가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는 복되어라!
- ◎ 알렐루야.

복음 마태오 25,31-46

영성체송 시편 29(28),10-11

주님이 영원한 임금으로 앉으셨네. 주님이 당신 백성에게 강복하여 평화를 주시리라.

[성가]	8시	입당 75	봉헌 215	성체 180	파견 73		
	11시	입당 78	봉헌 511	성체 176, 187	파견 73		
그리스도왕 대축일	11월 26일(일)		11월 28일(화)	11월 29일(수)	11월 30일(목)	12월 1일(금)	12월 2일(토)
	8시미사	교중미사					
미사해설	정미경 말가리다	권창모 미카엘	이은자 마트로나	이명련 파트리샤	황혜정 데레사	이명련 파트리샤	꾸리아
독서	강신호 요한 이선미 에스더	김상윤 안젤로 황선희 세실리아	정기환 레안델	윤춘주 세레나	이기자 요안나	이명란 아네스	꾸리아
제의방	허홍숙 세실리아	장희숙 루시아	이은자 마트로나	윤춘주 세레나	장희숙 루시아	정인경 가브리엘라	허홍숙 세실리아

■ 11월 위령성월

- 주일 8시/11시 미사: 매 미사 20분 전(창 2양식)
- 평일미사 매 10분전, 2양식(짧은연도)로 낭독연도 있습니다.

■ 영정 사진 촬영 안내

- 영정 사진을 만들기 원하는 분들을 위한 촬영
- 촬영일: 26(일) 미사 후 성당 안

■ 성경 경시대회

- 일시 : 11월 26일(일), 교중미사 후
- 대회방식 : 경시대회 범위는 신약성경(주보 3면 내용 포함)
 - 1) 전 신자 OX 게임
 - 2) 구역대항 : 각 구역에서 대표자 3명 선출

■ 대림시기

- 12월 3일(일)은 대림 제1주일이 시작됩니다. 대림시기는 '주님 성탄 대축일' 전의 4주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리는 주님 성탄 대축일을 준비 하면서 다시 오실 구세주를 기다리는 시기입니다.
- 대림 제1주일 교중미사 중에 성수축복예식이 있습니다.
- 성탄 트리 작업: 11월 26일(일), 청년회/하상회
- 선물 나눔을 하실 분은 성탄절까지 성탄 트리 아래에 선물을 두시면 됩니다.

■ 성탄판공성사

- 12월 3일(일) 대림 제1주일-12월 23일(토) : 미사 30분 전
- 12월 10일(일), 오전 10시 : 예수회 박영수테오도르 신부님 판공성사

■ 가정용 대림환 판매(선착순 한정 판매)

- 판매일 : 12월 3일(일) (가격: 10불)
- 대림환 작업 하실 분은 12월 2일(토) 11 미사 후 친교실

■ 토요일 미사전례 안내

- 12월 2일(토) 11시 미사 : 꾸리아
- 꾸리아 회의: 오전 9시, 교육관 6.

■ 레지오 연차총친목회

- 일시 : 12월 10일(일), 밥나눔 후, 친교실
- 대상 : 레지오 단원들과 협조단원들

■ 12월성경 통독

- 12월 바오로 서간(읽기분량 : 로마서 8.1-9,33)

■ 밥나눔 안내

- 알라메다 구역 김젼마 자매님이 아들 이안을 위해 기도해 주신 신자 분들에게 감사하는 마음으로 오늘 밥나눔 티켓 3장 나눠드립니다.
- 문의 : 송성숙아네스자매님(오일공 - 삼철오 - 오일사철)

■ 밥나눔 봉사자 야유회

- 일시 : 12월 1일(금), 오전 9시 30분
- 당일 아침미사는 오전 9시에 봉헌됩니다. 착오없으시길 바랍니다.

■ 공동체 기도 지향

- 박영자 마리아, 박영자 클라라, 조상희 마리아, 송정현 헬레나, 신정열 올리엠티, 정연중 비오, 최라파엘, 전옥분 크리스티나, 홍윤표 베드로, 황정숙 말찌나, 권주선 다니엘, 천혜수아네스, 브루스아론조 발바라, 신공진 요한, 박숙모 아네스, 박인규 시몬, 이안 Franks, 손한석 가브리엘, 김정희 올리엠티, 정화봉 로사

■ 모임 및 회의

- 유니언 구역 : 12/2(토) 오후 5:30 정안드레아 댁
- 캐스트로벨리구역 : 12/2(토) 오후 5시 이요셉 댁
- 구역장 회의 : 12/3(일), 오후 1시, 교육관 6
- 사 목 회 : 12/3(일), 오후 1:30, 교육관 6

■ 본당 청소 (매주 토 오후 12시)

- 문의 : 이덕용 대건안드레아(오일공 칠칠삼 사삼팔삼)

■ 빈첸시오회 지역사회 이웃돕기

- 문의 : 이영길 안드레아(오일공-이구이-오파일오)

☞ 감사합니다.

- 지난주 본당에서 봉사해주신 모든 분에게 감사드립니다.
- 추수감사절 음식나눔을 위해 봉사해주신 오클랜드구역원들에게 감사드립니다.
- 특별연도를 위해 점심준비를 해주신 선종봉사회에 감사드립니다.

☞ 영명축일을 축하합니다.

- * 그레고리오(11/27) : 김강훈
- * 유스티나(11/30) : 문아영
- * 안드레아(11/30) : 강시구, 이영길, 이순열, 정일양
- * 비비안나(12/ 2) : 문미선, 임유지, 정미현

☞ 성당에 처음 오신 모든 분 환영합니다.

하느님께서서는 예수님을 속죄의 제물로 내세우셨습니다. 예수님의 피로 이루어진 속죄는 믿음으로 얻어집니다"(로마 3,25).

바로 사도는 이 구절로 인간이 죄를 용서받는 방법을 설명했다. 예수는 인간의 죄 때문에 죽었지만 부활의 생명으로 죄를 씻어냄으로써 승리가 죽음을 삼켜 버린(1코린 15,54) 결과를 갖고 왔다. 이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피로써 속죄를 얻은 것이다. 이 속죄는 믿음으로 얻어진다.

또 사도는 의로움이 율법과는 상관없이 나타났다고 말하며(3,21) 아브라함의 예를 들었다. 아브라함은 굳센 믿음으로 하느님으로부터 의로움을 인정받았고, 고령에도 자손을 얻을 수 있었다(4,3). 이는 예수에 대한 믿음을 통해 우리가 의롭게 되는 과정과도 같다.

사도는 5장에서 아담과 예수를 대비시킨다. 아담은 불순종으로 죄를 지음으로써 이 세상에 죽음을 불러왔고, 그 이후 인간은 죄를 짓고 죽음을 맞이하는 운명에 처했다. 사도는 인간의 죄는 생물학적 죽음뿐 아니라 하느님과의 관계 단절을 뜻하는 영적 죽음을 불러온다고 말했다.

반면, 예수는 아담과는 반대로 하느님께 순종함으로써 인간을 의롭게 했고, 믿는 이들에게 은총과 생명을 풍성하게 내렸다. 이러한 점에서 사도는 "죄가 많아진 곳에 은총이 충만히 내렸습니다"(5,20)하고 고백했다.

그렇다면 인간은 어떻게 생명과 자유로움, 의로움으로 나아갈 수 있을까. 사도는 6장에서 세례를 통해 가능하다고 말한다. 그리스도의 죽음과 하나되는 세례를 통해 우리는 죄에서 해방될 수 있고, 의로움의 종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세례는 이 죄스러운 세상에서 은총의 세상으로 넘어가는 통과 의례다. 이를 통해 낡은 인간이 새롭게 변화하며 죄의 지배에서 자유로워진다. 이는 율법으로부터의 해방을 의미하기도 한다.

사도는 인간과 율법의 상관관계를 결혼한 부부에 비유했다. 부인이 죽음으로써 남편과의 혼인에서 자유로워지듯, 우리도 죄에 대해 죽음으로써 율법에서 자유로워진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왜 율법이 부정적인 것으로 드러났을까? 인간은 율법이 있기 전에도 죄를 지었다. 그러나 율법이 계명에서 죄를 정의함으로써 죄가 분명해졌다. 율법은 본래 생명을 위해 주어진 것이지만, 무엇이 죄와 탐욕인지 알리고 정의함으로써 역설적으로 인간을 죄인으로 만드는 결과를 가져왔다는 것이다.

또 사도는 율법과 심리적 갈등에 대해 예리하게 표현한다. "나는 내가 하는 것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나는 내가 바라는 것을 하지 않고 오히려 내가 싫어하는 것을 합니다. 그런데 내가 바라지 않는 것을 한다면, 이는 율법이 좋다는 사실을 내가 인정하는 것입니다"(7,15-16). 내 안에는 하느님의 법에 따라 살고자 하는 이성이 있지만, 하면 안 되는 것을 행하는 나 자신을 발견한다는 뜻이다.

사도는 개인의 이성과 행위 사이의 심각한 분열 현상을 "그러나 내 지체 안에는 다른 법이 있어 내 이성의 법과 대결하고 있음을 나는 봅니다. 그 다른 법이 나를 내 지체 안에 있는 죄의 법에 사로잡히게 합니다"(7,23)하고 지적했다.

"율법이 육으로 말미암아 나약해져 이를 수 없던 것을 하느님께서 이루셨습니다. 곧 당신의 친아드님을 죄 많은 육의 모습을 지닌 속죄 제물로 보내시어 그 육 안에서 죄를 처단하셨습니다"(8,3). 사도는 이처럼 그리스도와 성령 안에 삶으로써 율법과 죄의 법에서 해방되고, 이러한 내적 갈등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봤다.

성령 안에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은 하느님을 아빠라고 부르는 자녀가 되고, 평화와 사랑, 생명 등 하느님이 지니시는 모든 풍요로움을 예수와 함께 물려받는 공동 상속자가 되는 것이다. 아울러 우리가 잃어버렸던 영광을 되찾게 되면 인간뿐 아니라 모든 피조물이 영광의 자유를 얻게 될 것이라고 얘기한다. 이는 곧 우주적, 보편적 구원을 뜻한다.

사도는 이처럼 하느님 자녀가 누리게 될 미래의 영광을 이야기하며,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사랑이 얼마나 큰 것인지를 노래했다.

" 나는 확신합니다. 죽음도, 삶도, 천사도, 권세도, 현재의 것도, 미래의 것도, 권능도, 저 높은 곳도, 저 깊은 곳도, 그 밖의 어떠한 피조물도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님에게서 드러난 하느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떼어 놓을 수 없습니다"(8,38-39).

[평화신문, 2013년 3월 10일]

■ 미사참례인원 / 지난 주 정성

미 사 시 간		8시		11시		총				
미사참례인원		58명		175명		233명				
주일 헌금		2차헌금		교무금	Bishop's Appeal	감사 헌금	성소	선교	빈첸시오	황금빛 인생
8시 미사	교중미사	8시 미사	교중미사							
\$539	\$1,307	\$247	\$506	\$1,970	\$120	\$500	\$120			
[교무금] 이범준(11), 김아롱(11-12), 김옥준(9-10), 최경숙(6-8), 정일환(7-9), 이정연(11), 이상훈(11-12), 유윤미(11), 채성일(11-12), 한치용(9-11), 전문자(11), 손순옥(10), 김정자(7-12)					정일환	황선희, 채성일	정일환			

+ 미사지향

날 짜	연	지 향	봉 헌 자	날 짜	연	지 향	봉 헌 자
11/26(일)	연	이원진 야고보	가족	11/26(일)	생	황혜정 데레사	김영선 안젤라
	연	전안드레아/정시몬	전마리나 /아네스		생	황혜정 데레사	임은정 크리스티나
	연	주봉진 요셉	주정희 마리아				
	연	정대업 벤자민	정혜경 데레사				
	연	김형준 시몬	가족	11/28(화)	연	이원진 야고보	가족
	연	이호순 마리아	이에스터		연	주봉진 요셉	주정희 마리아
	연	김지성 에드워드	김케네스가족		연	서봉균 야고보	서프란치스코하비에르
	연	조숙자 바울라	조진행 바실리오		연	최정자 켄마	이동재안토니오
	연	박인준 아브라함	박로사가족				
	연	민정희 클라라	민제노베파	11/29(수)	연	주봉진 요셉	주정희 마리아
	연	옥제병 요한	민제노베파		연	서봉균 야고보	서프란치스코하비에르
	연	김마르코	가족		연	윤천호 바오로	윤세레나
	연	부홍신 마티아	가족				
	연	김옥희 아가다	조모나셀라				
	연	최순일 요셉	가족	11/30(목)	연	주봉진 요셉	주정희 마리아
	연	최순일 요셉	순배 수산나		연	서봉균 야고보	서프란치스코하비에르
	연	김승우 다윗	가족		연	장대식 바오로	장루시아
	연	로버트 오쿠모토	신 미카엘라				
	연	박시몬 부모님	박상일 시몬	12/1(금)	연	서봉균 야고보	서프란치스코하비에르
	연	박옥철	가족				
	연	에디황 프란치스코	가족	12/2(토)	연	이원진 야고보	가족
	연	윤기창 레오	윤루카/루시아		연	주봉진 요셉	주정희 마리아
	연	이재우 요셉	윤루카/루시아		연	본당 선종연령	선종봉사회
	연	임봉윤	임세트리다		연	서봉균 야고보	서프란치스코하비에르
	연	정미카엘	가족		연	유춘성 데레사	가족
	연	홍용범	이에스터		연	이남주 세레나	가족
	연	황문환 마르코	가족		연	전아드레아/정야고보	전알렉산델/스텔라
	연	황보파 켄마	임세트리다		연	전베드로/데레사	전데레사
					생	구리아 활성화	구리아
					생	성가단 활성화	성가단
	생	심연자 데레사	김영선 안젤라		생	최켄마 수녀님	엠펙트리샤
	생	윤루카/루시아 부모님	윤루카/루시아		생	신제이슨/세실리아 가정	천종욱 다니엘
	생	장민우	송아네스		생	발바라 부르스 아론조	전데레사
	생	조에드워드/소피아	조분도/리디아		생	이안 Franks	김켄마

<p>대 건 한 의 원 한의학박사 이 준 침·한약·체중조절·통증조절·체질감별 401 Roland Way #225 Oakland (510)444-1010</p>	<p>조미정 공인회계사 세금보고 및 회계감사 Business Consulting ☎ (925)803-0200 Fax (925)803-0204</p>	<p>김수정 부동산 김수정 나탈리아 Keller Williams DRE 02049482 ☎ (925)416-9249 julia.kim@kw.com</p>	<p>J & J Auto Service 자동차 정비와 바디수리 ☎(510)236-0550 강 요 한</p>	<p>폴김 & 김영선 안젤라부동산 주택/다세대 아파트/커머셜 ☎(510)847-5837/418-0358 DRE #01851957 #01036902 paulkimhomes@gmail.com LEGACY Real estate & Associates</p>
--	---	---	---	--